

美, 일본이민자 새 교주 “삼보 세계에 알리겠다”

미국불교교회

1800년대 후반 미국에 이민 온 일본인들이 세운 미국 불교 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 BCA)가 최근 14대 교주를 선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코도 우메쥬(Kodo Umezū)다. 그는 8년간 교주를 역임해온 코신 오구이(Koshin Ogui)에 이어 신임 교주로 발탁돼 새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메쥬 교주는 “BCA의 목표인 정토진종을 널리 알리는 것 뿐 아니라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전 세계인에게 알리겠다”며 “BCA가 국제적인 종교 조직으로서 종교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사찰과 공동체에 부처님 가르침을 충실히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도 우메쥬 교주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태어나 1973년 일본 용곡에서 불교학 전공으로 졸업하고 BCA에서 활동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왔다.

아미타 부처님을 믿는 일본 불교 최대 종파인 정토진종(淨土真宗)을 기반으로 하는 BCA는 일본 교토 혼간지파에 분산 사원을 두고 있으며 해외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 약 1만 6000회원과 60개 이상의 소속사찰을 갖고 있는 대규모 불교 모임이다. 또한 BCA는 캐나다, 남미, 호주, 네덜, 대만,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정토진종과 불교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BCA 역사는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이민자법으로 중국노동자들의 입국이 금지되자 이들을 대신할 값싼 노동자 수요의 증대로 일본 노동자들이 본토에 대거 입국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 이민자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



샌프란시스코에 본원을 두고 있는 미국 불교 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 BCA) 전경. 사진 왼쪽 상단은 BCA 14대 교주로 선출된 코도 우메쥬.

미전역에 1만 6000신도 포진

남미, 유럽, 호주 등 포교활동

‘교회’는 미국적용 위한 의지 표현

美 군중법사 파견하는 유일 교단

멘토 근처서 버를 성공적으로 경작했으며, 결국 쌀을 캘리포니아 주 농산물로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이런 영향으로 캘리포니아에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1898년 정토진종 선교사들이 진출해 들어온 것이다.

그 이듬해에는 본토 최초의 일본 불교사찰이 샌프란시스코에 건립됐으며, 북미불교선교회(Buddhist Mission of North America: BMNA)가 발족했다. 불교선교회는 적극적인 미국화 정책을 내세워 일본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러나 1924년 미국의 ‘동양인 배제법’으로 알려진 이민정책으로 사실상 아시아 계 이민이 금지되자 북미불교선교회는 포

교활동에 큰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BMNA는 다시 활기를 띤다. 2차 대전 동안 미국 정부가 태평양 연안에 있던 약 12만명의 일본계 주민을 집단 수용소에 가두는 조치를 취하면서부터다.

미국 불교 교회(Buddhist Churches of America)라는 새 이름을 채용한 북미불교선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원을 두고 후지모토 호겐 스님을 주축으로 전국 수백명의 수감자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이들이 출옥한 후에는 정신적 힘이 되어 주는 가하면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왔다.

‘교회’라는 표현은 자신들을 의식하는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BCA는 이름뿐 아니라 사찰을 기독교 교회와 비슷하게 만들고, 일요일에 집회를 하며, 오르간과 피아노를 예복 때 사용하고, 찬불가와 성가대를 사용하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 일본 이민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BCA의 중심은 여전히 일본계 신자들이지만 다른 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고, 2006년에는 유럽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교회의 주상이 됐다.

BCA는 공식 홈페이지에 신도수가 1만 6000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1996년 당시 BCA 신도 수가 78만 명이었던 통계수치가 있을 정도로 BCA의 규모는 대단하다.

이 같은 BCA의 교세(敎勢)는 산하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다. BCA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정규학위를 수여하는 승려양성기관인 불교대학원(Institute of Buddhist Studies: IBS)을 갖고 있으며, 정토진종 가르침을 전파할 지도자를 연수하고 전세계 불교문화를 교류하는 포럼 등을 개최하는 불교교육중심회(Center for Buddhist Education: CBE)와 전세계 여성 불교도들을 결집해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불교여성협회(Federation of Buddhist Women's Associations: FBWA), 불교인론 법륜신문(Wheel of Dharma)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BCA는 미국의 근대에 불교 군중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불교 교단이기도 하다.

“대처강요한 일본은 깊이 반성해야”

세계의 불교학자(30)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
日 도쿄대 명예교수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삼국 중 불교가 가장 늦게 전파된 곳은 일본이다. 그러나 19세기말 일본의 제국주의 시기부터 일본불교는 세계 불교학계를 제패했다고 할 정도로 불교학과 문헌학이 왕성하게 발달했다.

일본에서 연간 생산되는 불교학·인도학 관련 서적과 논문의 양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생산되는 양보다 많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세계의 불교학계를 이끈 일본 학자는 대부분이 문헌학자였으나 현재 일본 불교 연구는 사상사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불교학자인 스에키 후미히코(末木文美士·63)는 도쿄대 명예교수는 사상사적인 관점에서 불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스에키 교수는 일본 고대불교와 중세불교를 전공하지만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동아시아불교나 근대불교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했다. 불교 내 종파나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의 연구 방식을 꺼린 그는 불교를 시대의 흐름과 사상사 속에서 찾고 연구 하고 있다.

불교가 일본 근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스에키 교수는 그의 저서 《근대 일본과 불교》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불교의 변화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을 점검했다. 아울러 근대 지식인이 불교 사상 연구에 힘쓰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스에키 교수는 “메이지유신 이래 일본이 일으킨 전쟁과 일본 불교의 관계가 복잡하고 중요하며, 그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일부 불교도들은 전쟁에 반대하기는 커녕 장려했다. 이것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토진종(淨土真宗)의 지도자 키요자와 만시(清澤滿之)의 제자들 중 일부는 아주 공격적이어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미타불의 힘에 대한 순종이라고 단언하기까지 했다”며 “1945년 이후 불교 각 종파들이 이에 대해 회개하고 책임을 인정했다. 물론 모든 불교도들이 전쟁에 협력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종교 문제는 국가나 전쟁 등의 세속 문제를 초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전론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에키 교수는 《근대 일본과 불교》 서문에 학자로서 양심적인 고백을 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고대·중세관이 실은 근대가 왜 형성된 것인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늘날 고대·중세관이 실은 근대가 왜 형성된 것인지가 들린다. 역사 연구에서 연구자의 입장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인 역사란 있을 수 없다. 역사는 과

거와 현재의 대화에서 성립한다. 우리들은 근대적인 역사관·종교관에 빠져, 그것을 과거에 투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에서 나는 근대 불교 사상 연구를 착수하게 됐다. 또한 이 책에서 일본의 근대불교와 아시아의 관계를 다루었지만 대부분 중국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이는 나의 공부가 미진한 까닭이며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심민지 정부는 한국 승려에게 대처(帶妻)를 강요하는 등 폭거를 자행했다. 그것은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상사적 관점서 불교연구

日근대불교 연구통해

전쟁장려한 日불교 비판

흔히 일본 불교를 ‘장례식 불교’라고 한다. 이에 대해 스에키 교수는 ‘사자(死者)의 철학’의 논리를 전개한다. 그는 “일본은 집집마다 불단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조상의 영혼을 위해 일정시기에 절에서 천도제를 지낸다. 이런 현상을 ‘장례식 불교’라고 비판하지만 이는 일본인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근본적 관심을 가르쳤다”고 말한다.

스에키 교수에 따르면 이런 불교의식이 무상감(無常感)을 일본인에게 인식시켜 줬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인들은 죽음을 상기하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대승불교는 죽은 자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대중들이 대승불교를 따르게 된 이유도 불교도들이 부처의 죽음을 이후 부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스에키 교수는 1973년 도쿄대학 문학부 인도철학학과 졸업하고, 1978년 동 대학원의 인문과학연구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저서로는 《헤이안 초기 불교 사상의 연구》《일본불교 사상사 논고》《일본불교사-사상사로서의 접근》《해체되는 말과 세계》《벽암록》을 읽음》《기리쿠라 불교 형성론》《중세의 신과 불》 등이 있다.

이어나 기자

대만 불교 사원에서 최초 동성 결혼

불교 사원에서 최초의 레즈비언 결혼식이 8월 11일(현지시간) 대만에서 치러졌다고 AF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성애자인 피시 후양(30)과 연인인 유아팅(30)은 북서부 타오위안현에 위치한 불교사원에서 시흐 차오 후이 주지스님의 축복 아래 결혼식을 치렀다. 이날 결혼식에 후양과 야팅은 모두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으며 약 300명의 불교인이 이 커플의 앞날을 위해 염불을 외었다.

후양은 “우리의 결혼으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성애간 결혼을 합법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흐 차오 후이 주지스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역사의 산 증인”이라며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두 명의 여성이 당당하게 나섰다”고 밝혔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문화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중 하나로 동성애 단체들은 수



대만의 불교사원에서 여성 동성애자 커플을 위한 결혼식이 치러졌다.

년째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동성에 집단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 레즈비언 80쌍이 단체로 결혼식을 하고 1000여 명의 친인척을 초대하는 대형 피로연을 가졌다.

대만 정부는 2003년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 합법화 법안을 마련했지만 마잉주 총리는 법제화 이전에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나 기자

부처님과 키스해 감옥신세

佛관광객 스리랑카서 기념사진 찍다 유죄판결

외국인 관광객이 스리랑카 여행 중 불상을 훼손한 혐의로 철장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8월 2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온 여성 2명, 남성 1명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100여km 떨어진 도시 갈레(Galle)에서 불상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사진현상소의 신고로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관광객들이 불교 사원 안에서 불상과 키스하는 모습을 포즈로 취하고 사진으로 찍은 것.

보도에 따르면 스리랑카 판사는 “관광객들의 행위는 신성한 종교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적 모욕을 느끼기에 충분히 유죄판결을 내린다”며 이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5년형과 감도 높은 노동 및 벌금을 물

도록 지시했다. 스리랑카는 상좌불교(테라와)를 믿는 국가로 사원을 방문할 때 복장이 단정치 않으면 입장할 수 없으며, 불교이미지와 불상을 훼손할 경우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스리랑카를 방문한 5명의 아랍인이 불교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2010년 한 무슬림 상인은 부처님 이미지가 새겨진 열쇠고리를 판매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해 미국의 합작 음악가 에이콘(Akon)은 자신의 뮤직비디오 ‘섹시 chick’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불상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넣어다가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비자 허가를 거부당 했다.

이어나 기자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발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 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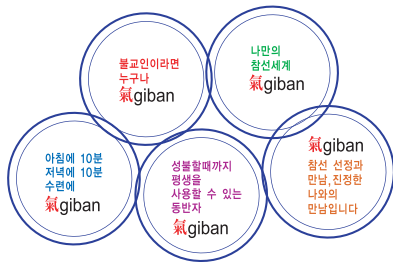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동행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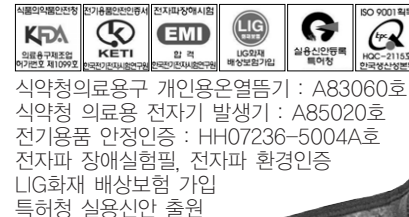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벨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의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차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목각볼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땀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염증,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교활한,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운 열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썩음(최고80°C)보다 높은 고열(90°C 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땀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어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입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복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일도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형지극건강메트, 오스킨전조기, 오주베게트 등 자매품다양)



여기에 자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머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갑다 *오심, 구역, 소화,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